



ACC재단 기획으로 영국의 화제의 작품이자 관객 참여형 공연인 '푸드'가 4월 19~21일 ACC 예술극장에서 펼쳐진다.

〈ACC재단 제공〉

공연 무대에서 근사한 식사를?

수백 개 플라스틱으로 완성된 화려한 상들리에, 150여 개의 다양한 소품, 20여 종의 신선한 음식, 식욕을 돋구는 소품과 무대 장치 그리고 다채로운 음식.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공연 무대에서 근사한 식사를 한다던?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진다. 한번쯤 영화 속, 또는 연극 속 '주인공'이 돼보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일 것 같다. 인간에게 의식주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 가운데 식(食)으로 대변되는 먹거리는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음식은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이색적인 모티브와 주제로 변주돼 왔다. 앞으로

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은 곳 곳의 스토리와 결합돼 흥미로우면서도 특수성을 지닌 콘텐츠로 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먹고, 왜 먹는가? 그에 앞서 먹기 위한 음식들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가. 다소 철학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푸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식탁에 둘러앉은 관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배우가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며 공연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영국 화제의 작품, 관객 참여형 연극 '푸드(FOOD)'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오는 4월 19일~21일 예술극장 극장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아티스트이자 미술사로 활동 중인 제프 소벨은 이번 공연에서 웨이터로 등장한다. 그는 감독이자 연출도 맡았다. 이번 연극 이전에도 그는 일상적인 주제를 토대로 비밀상성을 탐색하는 시리즈 작품을 선보여왔다. 공연은 가변형 극장인 ACC 예술극장 극장에서 진행되는 터라 그에 맞게 무대가 구성된다. 관객 30명은 대형 식탁(가로 20m, 세로 21m)에 마치 대가족의 일원처럼 빙 둘러앉는다. 극 중 웨이터인 제프 소벨은 대형 식탁 앞에서 관객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준다. 메뉴 주문 등 일련의

행위 또한 하나의 작품 과정으로 수렴된다. 작품은 냄새를 비롯해 맛, 감촉 그리고 먹는 행위 등을 매개로 관객과 소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객들의 참여로 음식에 대한 관점은 새롭게 제시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의미가 부여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통역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배우의 감정과 행동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도 이채롭다. 오해한 담당자는 "관객들은 '푸드'라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일상에서 무심히 넘기는 음식에 관한 통찰



제프 소벨.

외에도 일상의 다양함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4월 19일 오후 7시30분, 20일 오후 2시와 8시, 21일 오후 2시이며 관람료는 테이블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ACCF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적 동지였던 부부 '영원한 비상을 꿈꾸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실비아올드 작 '비상'



김보현 작 '새와 놀다'

"나는 어려서부터 새를 좋아했다. 내가 살던 시골 집에 처마 아래 작은 구멍에 참새가 새끼를 낳았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를 주어서 기른 적이 있다." 한국회화 1세대이자 조선대 미술대학 산파역을 담당했던 김보현 화백(1917~2014)은 유년시절 새를 좋아했다. 미국에 왔을 때 자신을 도와준 지인에게 고마운 나머지 새를 선물했다. 당시 뉴욕의 작업실과 옥상에는 50여 마리의 새가 있었다고 한다. 김보현의 작품에는 곧잘 새가 등장한다. 그의 부인 미국의 조각가 실비아올드의 작품에도 새가 자주 나온다. 뉴욕에서 결혼한 두 작가는 예술적 동지로 함께 창작 세계를 열었다. 뉴욕 타임즈에 '미국 100인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던 실비아올드는 판화의 한 기법인 실크스크린을 최초로 작품화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김보현과 실비아올드의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관장 장민한)은 '김보현&실비아올드 소장품전-영원한 비상을 꿈꾸다'전을 5월 24일까지 연다. 김 작가의 회화 11점, 실비아올드의 조각 10점 등 모두 21점이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2014년 '행복한 동행' 전 이후 10년만에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민한 관장은 "두 작가를 추모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전시는 두 사람 작품에 많이 등장했던 동물과 새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 위주로 선별했다"며 "특히 새의 이미지는 자연과 자유에의 의지 등을 함축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마치 가까이 있는 듯한 분위기가 환기된다. 1실에서는 '날으는 새'와 '비상'을 만난다. 김 작가의 대표작 '날으는 새'는 다섯 명의 인물이 새를 바라보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특이한 것은 두 명이 거꾸로 서 있다는 점이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허공을 가로지르는 새의 모습이 인상처럼 박혀 있다. 2실에서는 김보현의 '새와 놀다', '푸른 꿈' 등과 실비아올드의 '새 시리즈'를 볼 수 있다. '새와 놀다'는 세 명의 인물이 가운데 새를 두고 바라보는 장면을 조점화했다. 인물들의 표정과 자유로워 보이는 새의 몸짓은 작가가 꿈꾸는 이상향에의 동경처럼 보인다. 3실에서는 미국 9·11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9·11'과 실비아올드의 '새의 노래'가 전시돼 있다. 실비아올드의 '새의 노래'는 그녀의 조각에 대한 철학적 사유 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나무껍질과 줄 등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새의 비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 자유의 의지를 추동하게 한다. 지난 2002년 조선대 미술관에서 전시한 이래 21년 만에 공개되는 작품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소질"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영성 없는 진보' 펴냄



"영성이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굳건한 믿음에 준립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이성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인식 아니고 믿음이다." 김상봉(사진)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영성 없는 진보'를 펴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철학적 진단과 비판, 향후 가능성 등을 모색한다. 책은 지난해 경남대 K-민주주의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글을 다듬어 엮은 것이다. 저자는 '비판에만 몰두하여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과 '영성을 잃었다는 것'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 비롯됐다고 본다. 다시 말해 '타자의 비판이 한갓 타자의 부정에 머물러 적극적 자기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본다. 저자는 영성이라는 근원에 대해 "정치적 당파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사실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며 "그것은 정치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소질"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영성은 결코 특정 종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달리 표현하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낀다는 의미다. 책 제목 '영성 없는 진보'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표현이다. 평생을 진보 진영에 있었던 저자는 지금의 위기를 다른 진영의 위기로 보지 않는다. 또한 철학자의 시선은 진보라는 울타리안 간혀 있지도 않는다. 저자는 "조선 왕조가 썩은 흙담처럼 무너져 가던 시절, 동학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언어가 필요했던 것처럼, 국가가 아니라 민족 자체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절실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라며 "새로운 믿음을 고대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저자는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철학, 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했으며 칸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명예아카데미 교장과 학벌없는 사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호모 에티쿠스',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철학의 현장',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합창으로 새봄 만끽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장면.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완연한 봄기운이 천지에 만연한 요즘, 신춘(新春)을 맞이하는 공연가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양한 새봄맞이 공연들이 예정돼 있지만, 그중 인간의 목소리만큼 큰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는 없을 것 같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제195회 정기연주회 '신춘을 악회 봄, 합창으로 노래하다'를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미사곡, 남여 및 혼성 합창 등 물론 뮤지컬 넘버들과 가곡까지 다채로운 구성을 만나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리엘 리미네즈의 '미사곡 리올라'로 막을 올린다. 군사독재로 혼란한 시기를 겪던 아르헨티나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은 곡으로,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광주의 5·18을 떠올리게 한다. 테너 강동명과 월드뮤직앙상블,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부를 예정이다. 여성합창 '바람은 남풍'을 비롯해 표현된 솔로곡 '제비꽃' 등도 울려 퍼진다. 윤학준의 '나 하나 꽃피어', 청산을 통하여 세상의 번뇌와 시름에 대한

고통을 승화시킨 가곡 '청산에 살리라', 김준범 편곡 '봄이 오면' 등은 혼성 합창으로 들을 수 있다. 남성합창으로 듣는 '신고산 타령'도 이목을 끈다. 개화기에 만들어진 합경도 민요 중 하나. 또 신선한 가사와 소재로 가요계에 열풍을 일으켰던 '홍보가 기가 막혀'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밖에 '바람의 노래', '비행기', 황소리가 편곡한 뮤지컬 컷츠의 'MEMORY', '레베카 ACT'도 혼성 합창으로

울려 퍼진다. 박승희 홍보담당은 "힘과 용기를 불어넣은 곡 '미사곡리올라' 등을 통해 광주시립합창단의 완성도 높은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신춘공연이 봄이 환기하는 따뜻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및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참가곡 모집

광주의 5월을 뜨겁게 달궈 '들불' 같은 노래들을 찾는다. (사)오월음악 오월창작가요제가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참가곡을 모집한다. 가요제는 대상 100만 원, 금상 500만 원을 비롯해 은상(300만 원), 동상(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음원(MP3 파일), 악보(PDF) 및 연주 동영상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동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한 뒤 해시태그 '#제14회전국오월창작가요제', '#오월창작가요제'를 달고 해당 동영상 링크를 참가신청서에 기입하면 된다. 1곡 이상 중복 참여 가능하며 실물 음반, 온라인 음원, 뮤직비디오 등으로 발매,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 창작곡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5·18 민중항쟁을 기리고 오월 정신을 담은 노래, 시대정신(평화, 기후위기 등)을 담은 노래는 응모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목화'팀이 '출항'을 부르는 장면. 〈광주일보 자료〉 오월창작가요제 관계자는 "1차 예선을 거쳐 5월 11일 현장 라이브 경연, 25일 5·18 민주광장에서 2차 라이브 경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목화, 우안개, 오후&성지승, 보연 등 다양한 뮤지션들을 배출한 오월창작가요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